

#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미디어 활동가·시군 중간지원조직 등 도시·농촌 미디어 단체...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방안 토론회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최로 2021년 '전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가 25일 옥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전북민중언론시민연합',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네트워크',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장수지역활력센터' 등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미디어 전문가, 도시와 농촌지역 미디어 현장활동가들이 발제와 토론회를 주재해 매우 현장감 넘치는 정책 토론회가 됐다.

이번 발제를 발표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 센터장은 "전북 마을미디어 단체 활동이 인세매체 발행에서 라디오와 영상으로 영역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미디어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역 사회의 차별적 활동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지역간 주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역 사회의 차별적 활동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지역간 주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 전북도, 광활자활기업 자립 위한 컨설팅

도내 5개 광역자활기업, 경영전문가 투입해 체계적인 관리 지원  
광역단위 공동사업·광역화로 매출 증대... 내년 추가 출범 앞둬

전북도가 광역자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소, 집수리, 배송 등 5개의 광역자활기업이 있다.

이들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스위퍼 협동

조합'은 전북 향토부대인 35사단 아파트 단지 청소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예비군훈련장 방역 소독 등 다양한 용역 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다.

양곡 배송을 주로 하는 '전북희망나드리'는 군산먹거리리활지원센터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배송에 관한 협약을 맺고, 배송사

업의 틈새시장 발굴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주거복지협동조합 '가든'은 LH에서 시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수주해 광역자활기업의 매출액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자활기업의 건설업 및 부대사업 분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자활기업이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올해는 신규 광역자활기업의 출범도 앞두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돌봄사회서비스 기업들이 규모화해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다.

광역자활기업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하거나, 수급자 등이 참여해야 출범할 수 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기관과 자활사업이 물적·인적·공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호연대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워크숍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 활동,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권특강과 지역 인권기구의 국내외 활동사례 소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회적 재단 속에서 지역 인권 활동 사례·지역별 인권 현안을 공유하

고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다음연도 지역별 인권활동 방향과 전국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전국협의회의 운영 방향도 살피었다.

전국협의회 의장 설동훈 도 인권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재단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인권위원들과 함께 인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수군·카텍에이치·전북도, 투자협약

탄소산업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북도과 장수군은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주)카텍에이치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맞춘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시킬 대응책과 장수군을 탄소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시킬 방안, (주)카텍에이치 공장 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카텍에이치는 장제농공단지내 180억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신설하고,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주)카텍에이치는 탄소섬유 제조업체로 KIST로부터 탄소섬유 화학적 처리기술을 이전 받고 고품질 친환경 리사이클링 처리기술을 가진 탄소산업분야 유망 기업이다.

(주)카텍에이치에서 제조중인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은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로 구성된 복합재료로 항공, 자동차, 선박 등의 필수원료로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첨단소재다.

장수군으로 새로 이전하는 (주)카텍에이치는 기존 구)안골코리아 부지를 인수해 2022년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150억 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진호 대표는 "장수군은 미래 탄소산업에 있어 중간 요충지로 최적화된 곳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전북이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영수 군수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주)카텍에이치와의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군에 탄소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나아가 전북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대회 성료

제8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대회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회장 장철규) 주관으로 25일 전주 중부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취소되었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종사자 640여명이 각 시설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도록 진행됐다.

행사는 1부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부에서는 아동 공연영상 시청, 우수특화 프로그램 공모, 종사자 일상시간 경연대회 등 종사자 간 소통·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제8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대회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회장 장철규) 주관으로 25일 전주 중부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취소되었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종사자 640여명이 각 시설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도록 진행됐다.

행사는 1부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부에서는 아동 공연영상 시청, 우수특화 프로그램 공모, 종사자 일상시간 경연대회 등 종사자 간 소통·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 도민친절 실천 공직자 '귀감'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농산유통과 신하은 주무관 선정

전북도 농산유통과 신하은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 올해 11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도는 11월에는 친절환 자제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감동 행정서비스제공에 노력한 민원 관련 직원 대상으로 이달의 친절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번 혁신 주인공으로 선정된 신하은 주무관은 7년간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부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도민 친절을 실천한 공직자로서 귀감이 됐다.



특히, 신 주무관은 지난 8월 우천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진화에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성심성의껏 소통했다.

아울러, 피해농민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론화해 한명의 농가도 누락 없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시·군에서 분석·제출해야 할 벼 병해충 피해 18만 필지 데이터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비교 분석해 동료 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국가지원사업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단으로 시

를에 잠긴 농가를 위해 스스로 사례를 검색하고, 타시도의 자료를 분석해 추경 신규사업으로 27억 원을 확보하는 등 도민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하은 주무관은 "저보다 친절 한 직원분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민원인과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 덕목 중 하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환 자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이상무'

제설자재 최근 3년간 평균소요량 대비 96.6% 확보  
염화칼슘, 최근 3년간 평균소요량 대비 126.3% 확보

전북도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을 위해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도는 염화칼슘 3,415톤, 친환경제설제 3,020톤, 소금 12,599톤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19,034톤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96.6%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염화칼슘은 최근 가격상승(23~25만원 → 47~50만원, 104%정도 증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126.3%를 확보해 올해 제설작업은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상 기후에 따른 폭설 증가 등 민원에 대비해 염화칼슘 1,229톤, 친환경제설제 833톤, 소금

4,597톤 등 추가 물량 6,659톤도 12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염화칼슘 단가 상승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 구입 가능한 친환경제설제로 대체하는 등 제설자재 확보에 주력할 복안이다.

또한, 평년보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발생하면, 재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에 나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2021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민의 불편 및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제시 공고 제2021-979호

### 김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열람공고

김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김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안'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 2022년 ~ 2026년 (5년)
  - 범 위 : 김제시 전체
-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문제점
  - 관련계획 및 사례검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목표와 전략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세원조달 방안
- 주민의견 청취사항
  -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개세 다음 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계반쪽 건설과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김제시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내 제출  
(전화 : 063-540-3849, FAX : 063-540-3440)
  - 관계도서 : 심층생략(열람장소 비치)
  -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김제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